사과, 한 개의 열매였지만 세상에 놓이는 순간 인류를 바꾼 모티브가 되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꿈꾸는 사과

모지현 지음

'이브', '빌헬름 텔', '뉴턴', '백설공주', '폴 세잔', '파리스'….

위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사과'와 연관돼 있다.

인간에게 사과는 가장 밀접한 과일 가운데 하나다. 사과에 대한 일반의 생각은 각자의 경험이나 느낌만큼이나 다양하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과는 풍요와 사랑, 예지를 상징한다. 이와 달리 속임수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의 과일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기호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 뿐아니라 사과는 역사와 종교, 신화, 과학, 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이기도 하다. 이 말은 '한 개의 열매였지만 세상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인류를 바꾼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꾼 여덟 가지 사과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꿈꾸는 사과'라는 제목부터 흥미롭다. '한국현대사 100년 100개의 기억', '청년을 위한 세계사 강의 1~2'의 저자 모지현이 썼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사과를 '왜' 어떻게 선택했을까? 과연 사과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 함축적인 제목은 단순한 열매를 넘어 다양한 함의와 역동적인 서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가장 먼저 저자는 '태초에 사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브가 먹은 사과는 기독교(그리스도교)적 시선에서 보면 죄와 연관돼 있다. 신과의 단절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잉태한 '악한 과일'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브의 사과'라고 불릴만한 표현은 없다. 그런데 왜 금단의 열매로 지칭됐을까.

"'사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최초의 죄를 가지고 왔으며 남성을 유혹해 같은 죄를 짓게 한 육체적 여성이, 우월한 정신적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야말로 유럽의 남성 기독교 신학자들과 남성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형태의 질서였다."

저자는 "그와 같은 열등 프레임에 가둘 수 없었던 이브의 딸들은 마녀로" 몰리게 됐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특히 17세기 불어닥친 혼돈 속에서 여성들은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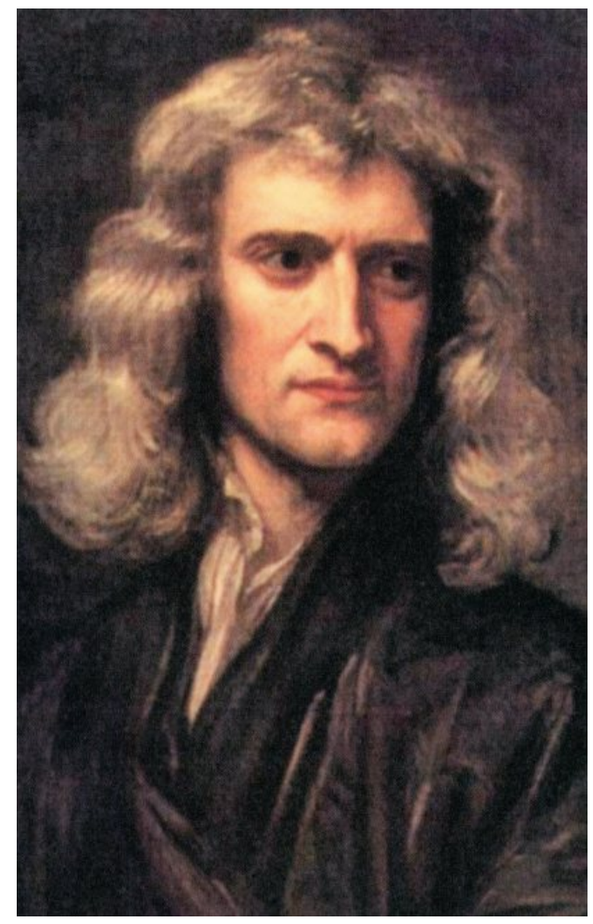
신화에서 사과는 어떻게 그려졌을까. 올림포스 산으로 명명되는 영원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한정되는 인간의 역사로 들어오는 부분에도 어김없이 사과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게 '파리스의 사과'다.

저자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시작해 파리스가 던진 사과는 결국 트로이아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승리한 미케나이 또한 같은 운명이 되었다"고 부연한다.

그런데 의문은 남는다. 그리스 신화로부터 트로리아, 로마,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과연 파리스 사과는 파멸만을 의미했을까, 라는 점이다. "남은 자들에 의해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사과에 담긴 또다른 '풍요'를 암시한다.

아울러 빌헬름 텔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다. 자유에 대한 의지와 혁명정신, 진리를 향한 과학의 여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밖에 당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백설공주 사과는 단순한 동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장르를 초월해 다양한 이야기로 전이되는 부분에는 사과가 자리한다. 그만큼 사과는 역동적인 상상과 창의를 선사한다.



46세 때의 뉴턴 (고드프리 넬러. 1689년)

오늘날 사과는 혁신의 상징 애플을 대표하는 로고로 유명하다. 사과를 한입 배어 문 이미지는 영감의 원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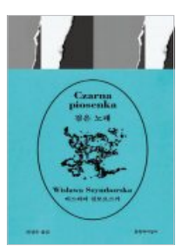
이밖에 세상을 인공지능 시대로 옮긴 튜링의 사과, 정물화에서 찾아낸 자연의 의미를 담은 폴 세잔의 사과도 이채롭다.

〈이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검은 노래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지음·최성은 옮김



199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출신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지난 2012년 2월 1일 지병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쉼보르스카의 오래된 원고 뭉치가 시집으로 출간됐다. '검은 노래'는 생전에 출간되지 않은 초기작들로 구성돼 있어 '시인 이전의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45년 '단어를 찾아서'를 발표하며 등단한 쉼보르스카는 1949년 무렵 등단 시집을 준비했으나 안타깝게 발간하지 못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설이 있다. 스스로 출판을 철회했다는 설, 정권의 검열 때문이라는 이유 등 여러 말이 있다.

번역을 맡은 최성은 한국외국어대 폴란드어과 교수에 따르면 이번 시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는 제2차 세계대전과 대학살,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상실, 아픔 등이다. 시인의 생애에서 자의나 혹은 타의로 빈칸으로 남아 있던 공백이 시집 출간으로 비로소 메꿔졌다고 보는 이유다. 쉼보르스카의 미발간 초기 원고 외에도 생전 출간된 정규 시집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도 연대별로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첫 시집 이전의 시에서 위대한 시인의 첫걸음을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1996년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연설문은 여전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세상을 떠올릴 때마다, 늘 그 거대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겪는 개별적인 고통에 세상이 너무나도 무관심한 데 대해 쓰라린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갖는 시어의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과학문명사 강의

신동원 지음

일제강점기와 국토가 폐허가 된 전쟁을 겪고도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나라. 외국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대체적인 내용이다. 수천 년간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인접해있으면서도 포섭되지 않고 고유문화를 지켜난 나라,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문명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신동원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이 한국문명 발달의 원동력이었다고 단언한다. 세계문명을 창의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것으로 승화한 슬기로운 지혜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연구 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신 교수의 책 '한국과학문명사 강의'는 11가지 대표적인 기술과 발명에 초점을 맞췄다. 근현대 과학사까지 포함해 한국과학문명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부 '하늘'에서는 '제왕학'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학문 분야였던 천문학 발전 양상과 역법, 수학, 음악, 도량형 등을 다룬다.

2부 '땅'은 '풍수지리' 연구와 지도를 그리기 위한 노력, 광물질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 3부 '자연'에서는 고대 동식물 그림에서부터 실학사상에 기반한 조선 후기까지가 주 내용이며 4부 '몸'에서는 향약 연구부터 '동의보감'에 이르는 고유 의학을 아우른다. 5부와 6부는 각각 '기술과 발명', '한국 근현대 과학사'가 주제다. 전자에서는 석굴암, 고려청자, 금속활자, 한지, 화약과 화포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며 후자에서는 개항 이후 시행착오와 그럼에도 눈부시게 성장한 과학기술의 역사를 살핀다.

〈책과함께·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은 도깨비와 함께 산다

이윤선 지음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하는 존재' 바로 도깨비다.

'성찰하는 민속학'을 표방해온 인문학자 이윤선은 도깨비를 '이름도 빛도 없는 우리 민중'에 비유하며 무한한 애정을 피력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남도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편소설 '바람의 집'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그의 책 '한국인은 도깨비와 함께 산다'는 도깨비의 기원이 된 비형랑 설화부터 혼불, 불놀이 계보를 따라서 도깨비의 형상과 이미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에서의 도깨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며 한국 민속의 이모저모를 파고든다.

책은 '도깨비와 귀신은 같을까, 다를까', '치우가 도깨비일까?', '문지기가 된 목랑', '한중일 도깨비', '도깨비방망이와 도깨비감투', '도깨비고사, 갯벌로 간 김서방, '유쾌한 반란, 도깨비 굿의 심연' 등 총 9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도깨비와 사람과의 '친연성(親緣性)'에 주목한다. 인간과 신의 교섭지에 머물면서 신격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사람보다 천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비하되기도 하는 도깨비는 어딘가 모자라고 어리숙하며,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방망이 하나로 재화를 만들거나 금전 보따리를 내주는 것'처럼 인간의 자잘한 욕망들을 해소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도깨비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이나 지역, 가부장 대신 여성, 문화적 다양성 등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존재다"라고 설명한다.

〈다할미디어·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